

제 179회 일본전문가 초청세미나

주제: The Strategic Meaning of Japan-North Korea Relations: A Perspective from Chinese

강연자: 리난(李楠)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원 및 서울대 객원연구원)

중국사회과학원의 리난 연구원의 세미나가 12월 9일 국제대학원 412호에서 열렸다. 본 세미나는 '북일관계의 전략적 의미: 중국에서의 시각' 라는 주제의 강연과 질의응답으로 2시간동안 진행되었다.

리난 연구원은 지난 2년간 북한에서 김정일의 죽음, 김정은의 집권, 2013년 도발적인 핵실험 등을 통해 중국에서 북한관련 뉴스가 헤드라인을 장식하였다고 소개하며 2014년 5월 아베 내각의 이이지마 이사오(飯島勲)가 평양을 방문한 것을 둘러싸고 미국, 일본, 중국 그리고 북한의 입장에 대해 설명하였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일본에게 설명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중국의 경우 북한이 중국에게만 의존했던 기존의 외교에 변화를 주는 사인으로 받아 들였으며 북한의 입장에서 김정은이 일본에 다가가는 전략의 동기는 미국과의 협상이 진척이 보이지 않고, 북한의 계속되는 경제적 영향력 그리고 장성택의 처형 등으로 꽤 두렵하다고 볼 수 있다. 비록 일본과 북한의 정책이 새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동북아 정세에 비추어보았을 때 양측 모두 기존의 틀을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분석하였다.

리난 연구원은 북한의 미국, 중국, 일본에 대한 전략에 대해 소개하였다. 북한의 미국에 대한 인식은 미국의 하락과 미국과의 관계개선이다. 1990년 이래로 북한은 지속적으로 미국과 관계개선을 하려고 했고 이러한 인식에는 변함이 없다. 또한 미중관계의 경험을 통해 북한은 항상 일본을 미국을 열기 위한 창으로 사용하였다. 현재 북한 외교정책에 고위관료가 된 강석주 조선노동당 국제담당비서가 중국의 경험을 따라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힘을 쏟는다는 루머가 평양에서 있을 정도로 일본은 북미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이 되었다. 북한의 중국에 대한 인식은 중국과의 경제적 의존관계는 있을지라도 중국이 북한을 버릴 것인가에 관한 것과 중일 간의 전쟁이 가능할까 하는 점이다. 일본에 대한 북한의 인식은 만약 김정은 정권이 경제발전을 실제로 추구한다면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마다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북한에 대한 외교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의 공식 여론조사에 의하면 일본의 북한관련 이슈는 납치문제, 핵 그리고 미사일 문제에 집중되어 있으나 납치문제가 지난 10년간 우위를 점해왔다. 모든 일본의 성공적인 수상들이 일본인 납치문제를 중요사안으로 다루었지만 고이즈미 준이치로 만이 납치된 사람들을 귀환시킬 수 있었고 2002년 김정일이 공식적으로 고이즈미에게 납치문제에 대해 사과를 하는 북한에게 있어 드라마틱한 진전이 있었다. 하지만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로 인해 협의는 중단되고 말았다. 2008년 이래 일본과 북한의 무역은 거의 제로에 가깝게 되었다. 아베수상은 정부 내 납치문제에 관한 대책본부를 처음으로 설치하며 납치관련 장관도 처음으로 임명될 만큼 열정적으로 납치문제에 관여하였다. 리난 연구원은 중국의 입장에서 보자면 정말로 납치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일본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 방법이 합당한 것인가를 유연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북일관계와 납치외교에 대한 시각으로서 리난 연구원은 비록 아베가 평양에 연계정책을 펼치더라도 이것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포함한 국가안보이슈에 대한 우선권을 감소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한편에서는 워싱턴은 "납치외교"에 대해 적게 언급한다. 2008년 크리스토퍼 힐은 평양을 테러리스트지원국 목록에서 지우는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일본은 이러한 것을 미리 주의 받지 못하였고 미국의 행동을 비난하였다. 중국의 입장에서 보자면 차후 납치

문제가 일본과 미국에게 잠재적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리난 연구원은 장기적으로 중국에서 바라보는 북일관계에 걱정되는 점으로는 크게 안보와 경제 문제를 꼽았다. 안보 면에서는 중국은 심각하게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걱정하고 있으며 핵을 가진 이웃국가들 더 이상 원하지 않으며 장기적으로 중국은 북한의 핵개발이 일본을 자극하고 다른 지역의 국가들이 핵개발 하도록 하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 경제 면에서는 북한을 돕는 것이 중국의 경제발전에도 도움이 되며 중국은 한국, 북한과 모두 경제발전에 협력할 수 있지만 현실은 중국이 북한에 석탄 같은 원자재를 요구하는 것일 뿐이다. 만약 일본의 투자가 북한에 소개된다면 발전된 기술력과 시장경제의 경험을 가진 일본이 북한에게 더 매력적일 수 있고 현재 미안마에서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리난 연구원은 2013년부터 일본과 북한의 관계가 더 제한된다고 주장하였다. 중국은 협상을 재개하고 일본과 북한의 관계정상화를 위해서는 양국을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견고하고 안정적인 체제가 요구된다고 믿는다. 그러나 평양과 도쿄의 정부는 지난 50년간 불신을 표현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과 북한의 관계는 제한적이게 된다.

<질의응답>

질문1: 누가 주도적이나 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중국의 입장에서 북한이 경제문제 때문에 주도적으로 일본을 포용하는 것이 생각한다. 납치문제 같은 경우도 그러하다라고 생각하는가?

답변1: 중국은 북한과 일본 두 측 모두를 생각한다. 일본의 입장이 매우 흥미로운데 왜냐하면 이 이치마가 평양을 방문했을 때 중국과 미국이 많이 놀랐다 왜냐하면 일본이 미국에게 더욱 독립적이 되기 때문이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중국은 일본을 많이 걱정한다. 미국이 일본을 제어해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북한의 경우 관료들과 학자들의 의견이 다른데 관료들은 다른 나라들과 더 많이 교류하길 바란다. 하지만 시진핑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평양이 아베를 초대 할 것이라는 루머가 돌았지만, 미국은 절대 아베가 그러면 안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중국은 일본을 북한보다 더 신경 쓰는 것 같다. 북한이 최근 러시아에 가고, 북일 납치문제가 진행되는 것에 관료들은 환영하지만 학자들은 걱정하고 있다. 하지만 납치문제에 있어서는 국내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을 안 하고 중국은 이것에 간섭하지 않을 것이다.

질문2: 일본의 입장에서 아베가 국내문제를 덮기 납치문제에 집중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답변2: 중국학계에서 농담으로 '일본의 정치는 국내여론에 의해 납치되었다.' 라는 것이다. 모두 국내문제에만 신경을 쓰는 것이다. 중국이 일본과 협상을 할 때 일본국내여론을 신경 써야 하는 것이 시간을 지체시키기 때문에 힘들어 한다. 그리고 중국이 일본의 정치를 잘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아베가 국내문제 때문에 납치문제에 집중하지만 중국은 여전히 아베가 뭘 궁극적으로 원하는지 궁금해 한다. 아마도 아베가 중국을 에워싸는 것일 수도 있다. 이것은 일본에 대한 음모론으로 중국은 일본 외교의 진짜 의도를 궁금해하고 있다.

질문3: 고이즈미의 2002년 북한 방문에 관심이 많은데, 그 시기 일본이 미국에게 아무 말도 미리 하지 않았다. 왜 일본이 말을 안 했다고 생각하나? 미일관계는 고이즈미 시기에 중요했다. 그리고 미국의 생각은 어떠했다고 생각하나?

답변3: 그 당시 미일관계가 그렇게 강하지 않았다. 워싱턴에 있었을 때 콘돌리자 라이스가 왔었고 일본과 미국의 학자들과 얘기를 나눌 때 일본을 강하게 비판 하였다. 매번 미국은 일본과 협상을 할 때 골머리를 앓았다. 한국과 미국의 상황은 완전히 좋았다. 미국은 일본이 하는 행동에 그리 좋아하지 않는데 일본이 북한에게 하는 행동들이 충격적이고 납치문제만 신경쓰기 때문이다. 그래서 크리스토퍼 힐은 미국은 한일과 차이점에 대해서 협력하느라 북한과 협력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나 일본이 6자회담에서 매우 큰 문제이다. 중국은 여전히 왜 일본이 6자회담에 들어왔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다. 왜냐하면 일본이 맨날 납치문제에만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질문4: '납치외교' 라는 것이 정책일까 아니면 전략일까?

답변4: 이것은 국내문제를 의식한 행동이고 아베는 이번 임기에 끝내고 싶은 문제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전략적 생각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닌 것 같다. 중국은 일본이 하는 것 모든 것이 반중국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중국 학자들은 음모론을 믿으며 아베의 외교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은 전혀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걱정하지 않지만 중국학자들은 매우 이 문제를 걱정하고 있다. 이게 학자들과 공직자들의 갭이라고 할 수 있다.

질문5: 미일관계가 앞으로도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하나?

답변5: 이것은 더 중요해질 것이다. 중국에서는 미국이 하락하고 일본을 제약하지 않는다는 것과 미국이 '아시아로 회귀' 를 취하면서 한미일 공조가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중국을 견제한다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미국은 이것이 경제적 기회를 잡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중국은 이것을 믿지 않는다. 이러한 미중 간의 신뢰가 많이 없는 것이 문제이며 풀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올해 스텐포드대학에서 이 이슈에 대해서 전 국무부 관리와 얘기를 나눴는데 그는 만약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시민들을 잘 대한다면 북한과 미국이 관계 정상화를 할지라도, 미국은 여전히 중국을 감정적으로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미일관계는 더욱 견고해 질 것이다. 미일관계에서 미국과 일본의 관계가 안 좋은 점도 있지만 이것은 미중 간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 다르게 변화할 것 같다.

질문6: 북한이 중국의 발전을 정말 배우길 원하는지 궁금하다.

답변6: 공식적으로 북한은 중국개혁을 배우지 않는다고 하지만 현실은 평양에서는 김정일 죽고 돌았던 루머로는 핵을 버리지 않고, 중국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예전에 북한이 기술적인 면을 배웠지만 지금은 경제적인 면을 배운다. 북한에서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학자들은 중국이 배운 것은 일본으로부터 배웠다는 의식이 있다. 일본은 훌륭한 자유경제가 있고 중국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학자들을 많이 불러 배우고 있다. 현재 일본과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많이 불러들이지 못하나 여전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이 유일하게 가르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나라기 때문에 중국에게 배우고 있다. 또 북한은 어떻게 1980년에 어떻게 중국이 개방 후 어떻게 살아 남았는가를 배우려고 한다. 특히 정보나 미디어를 컨트롤하는 점도 배우려 한다. 베트남도 중국도 많은 것을 배우고 있고 북한이 베트남에게 중국에게서 많은 것을 배운다고 말했다.

질문7: 안토니오 이노키 같은 레슬링 선수가 이라크라에서 일본인을 구출한 적이 있어서 유명해졌는데 이번에 7월 북한으로 가서 환영을 받았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나.

답변7: 왜 북한은 이런 가난한 외국인을 초대하는 것일까? 라는 농담이 중국에 있다. 많은 일본인들이 북한에 방문한다. 안토니오 이노키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북한은 노동자 계급에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열려있다. 내가 북한에 공부하려고 갈 당시 그들이 나의 가족사항을 확인 하였는데 지식인이어서 좋아하지 않았다. 그들은 주체사상에 걸 맞는 외국인들을 좋아한다. 북한에서 프랑스인과 영국인이 주체사상을 배우는 것을 보았다. 대항축제에도 고위관료들을 만날 수 있는데 그들을 통해 상징적으로서 세계에 비취줄 수 있기 때문에 좋아한다.

질문8: 북한의 발전과 경제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중국이 북한에 제공하는 경제원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있나.

답변8: 2013년 북한 핵실험 이후로 북한에 대해 원조를 줄이고 있다. 북한은 이것에 대해 매우 불만이다. 평양에서 이것이 중국이 미국과 함께 북한에 대항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작년에 무역에 증가가 있었으나 올해는 긍정적 영향력이 없었다. 북한에 작년 4번 방문하며 경제 발전이 많이 이루어 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중국에게 있어서 이것이 큰 기회일 수 있지만 북한에 가는 것에 대해 조심스러워 하고 있다. 특히 많은 비즈니스인들이 북한에 쏟아 부은 돈을 많으나 거두지를 못하고 북한은 돈을 더 요구하여 불평하였다. 최근 국영기업이 북한에 가는 것에 관심을 많이 가지나 사기업은 이것을 조심스러워 한다. 북한은 오히려 러시아나 일본에게 다가가고 있다.

질문9: 어떤 분야나 산업에서 중국인들이 북한에 대해 관심이 많은가.

답변9: 매우 작은 구두나 물건 같은 것이다. 그들은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작은 물건 밖에 팔 수 없다. 상하이에는 북한의 만화산업에 관심이 많다. 북한버전의 소프트웨어가 없지만 영어로 타이핑도 잘 한다. 중국의 다른 어떤 지방보다 북한사람들이 잘 훈련되어 있다. 하지만 북한 핵 이슈로 이제는 관심이 많이 없어졌다.

질문10: 많은 학자들이 미국이 하락 한다고 하지만 나는 미국이 정말 하락하는 것 같지 않다. 냉전에 비해서는 하락한 것이 사실이지만, 왜 북한이 미국이 하락 한다고 생각하나?

답변10: 북한이 중국에게서 미국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영향을 많이 받는다. 중국에서 민족주의를 가진 사람들이 평양을 방문하여 이러한 사상을 전달한다. 나도 미국이 하락한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북한에서는 일부의 중국의 이런 의견들을 듣는다. 오바마는 약한 리더라서 외교를 잘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미국이 약해진다고 생각하는데 북한은 미국이 하락하고 그래서 일본이 재무장하고 한국이 군사활동을 많이 하며 러시아를 제약할 수 없기 때문에 약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북한 학자에게 있지 북한정부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 북한정부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질문11: 평양에서 3개월 동안 살았다고 했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밖의 세계, 자료를 얻고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나.

답변11: 북한은 중국과 경계선에 있는 나선과 같은 곳에서 정보를 얻는다. 맥도날드, 코카콜라, KFC 같은 것도 알고 조선족이나 한국이 더 부자라는 것을 안다. 대학 학생들은 이메일도 보낼 수 있고 가족들이 높은 레벨이다. 그리고 어떻게 코카콜라를 먹게 해줘서 김일성대학 여자친구를 사귄 수 있을까? 라는 농담이 돌기도 한다. 또한 나는 북한인 룸메이트에게 미국영화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그들은 엄청 많은 정보를 받지만 사상적으로 완고하다. 하지만 평양 외 지역은 이런 정보를 받을 수 없다. 북한은 외부로부터의 정보를 막을 수는 없을 것이고 이게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질문12: 납치문제는 1988에 처음 나와서, 1997에 큰 문제가 되었다. 왜 이것이 점점 더 중요한 문제가 되어 간다고 생각하나.

답변12: 나는 일본전문가가 아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국내 정치문제 때문일 것 같다. 또한 민주주의국가에서 인권 문제를 중시한다. 일본학자들과 작년에 얘기를 나눴을 때 그들은 북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싶기 때문에 더 파고드는 것이다 라고 했다. 만약 납치문제가 잘 풀린다면 이것이 중국에게 걱정거리가 될 것이다.

질문13: 최근에 일본교수들이 북한을 방문한다고 하는데 이름을 아는가.

답변13: 한 교수님은 교토대학에서 북한에 대해 공부하고 계시고, 한 분은 도시샤대학에 계신다. 그리고 북한에 12명 정도 방문하는데 많은 정보를 입수한다. 기자가 말하길 북한공장에 마오와 주언라이어 사진이 걸려 있고 굉장히 인상적이라 하였다. 소련 같은 공장이라고 했다.

질문14: 내가 도쿄에서 공부했을 때 담당 교수님께서 북한을 두 번 방문하셨다고 하셨다. 북한에서 일본인 교수님을 만나본 적이 있나.

답변14: 작년과 올해 많은 일본인들이 평양을 방문한다. 먼저 베이징을 갔다가 평양을 가는데 그 때 중국 교수님들을 만난다. 그래서 그 정보들을 중국인들이 물어본다. 김일성대학에 2명의 한국인교수가 일본수업을 들었다. 중국관련 수업보다 일본수업이 훨씬 좋았다고 평가한다. 여러 북한 마을들을 방문하며 많은 기계들이 1970년에 만들어진 일본물건이 많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중국 물건이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본물건을 쓴다는 얘기를 들었다. 북한 주민에게 어떤 자전거를 제일 선호하냐고 물었을 때 대부분 일제, 한국제 그 다음에 중국제를 선호한다고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인으로서 일본과 북한이 경제협력이 잘 된다고 할 때 걱정된다.